

영산포 죽전골목 7080 축제 속으로



옛 추억을 새록새록 돌아나게 하는 영산포 죽전골목.

나주시·영산동주민협, 제1회 영산포 뉴트로 축제 18~19일...골목 체험·달고나 등 다채

1970~1980년대 영산포구 새벽시장 상인들의 추억과 향수를 되살리는 골목 축제가 나주시 영산포에서 열린다.

나주시는 오는 18~19일 이틀간 '제1회 영산포 뉴트로 축제'를 영산동 죽전골목과 일본인 지구가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산동도시재생주민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 뉴트로(Newtro)를 주제로 7080 복고 감성과 현대적 축제 콘셉트를 접목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선보인다.

주 무대인 '영산포 죽전골목'은 1960~1970년대 영산강이 바닷물과 통하던 시절 뱃길을 따라 영산포구에 도착한 새벽시장 상인들이 죽으로 허기를 달랬던 애환이 깃든 장소다.

당시 들어섰던 딸감 시장에는 동이 트기도 전에 물러든 상인과 딸감 나무 장사꾼에게 죽을 파는 집들이 호황을 누리면서 죽전골목으로 불리었다.

1980년대 초 영산강 하굿둑 건설로 바닷길이 막혀 상권이 쇠퇴하고 골목길에 늘어서 있던 죽집, 상가도 잇달아 문을 닫게 되면서 옛 추억만을 간직한 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방치돼왔다.

하지만 2016년 전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사업, 2019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골목길 정비, 빈 상가 리모델링 등으로 현재는 나주를 대표하는 복고 여행지로 관광객을 받고 있다.

영산동주민협의회는 마을 상권의 고유문화 계승, 특화거리 재생, 영산포 상권과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

축제 프로그램은 대부분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과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죽전골목 거리에서는 '노다지다방·형제소리사·고바우 만화방·죽전문방구·사진관' 등 그 시절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골목 체험과 윗놀이·투호놀이·팽이치기·달고나 등 전통 놀이가 진행된다.

죽전골목, 일본인 지구가옥, 영산포 역사갤러리 등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면 축제 운영 부스에서 기념품으로 교환해준다.

점심 시간대에는 죽전골목 대표 음식인 죽을 맛볼 수 있는데 협의회에서 동지죽 400인분을 만들어 관광객과 나눌 예정이다.

골목에는 미러볼과 각종 조명, 복고 음악이 어우러진 뉴트로나이트가 설치되고, 일본인 지구가옥에서는 7080비스킷 공연, 농산물과 공예품을 판매하는 평상마켓과 플라마켓이 운영된다.

한편 나주시는 2019년부터 영산포 일대 11만여㎡에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상생센터, 청년 창작소, 근대거리 청년몰, 오포대기특관 설치 등 영산포 도시재생을 주제로 20여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민주 영산동도시재생 주민협의회장은 "이번 축제가 영산포의 옛 영광을 되찾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지역 축제로 브랜드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고려 현종 피난 가고 동학군 넘었던... '장성 갈재 옛길' 국가지정문화재 됐다

문화재청 '명승' 지정 고시

동학농민군이 넘었던 장성 북이면 원덕리에서 정읍 방면으로 이어지는 '갈재 옛길'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다. 지정 명칭은 '삼남대로 갈재'이다.

이번 명승 지정은 백양사 백학봉에 이은 두 번째이며, 장성군은 총 13점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돌길과 흙길의 원형을 아직까지 그대로 간직한 점과 탁월한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갈재는 충청·전라·경상도를 뜻하는 삼남지방과 서울을 잇는 '삼남대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고갯길이다. 당시 이용이 빈번한 도로를 '대로'로 승격했으며, 이때 장성군 갈재가 포함된 삼남대로를 비롯한 9개 대로 체제가 완성됐다.

대로는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연결됐으며, 주요 민간교역로 기능을 했다.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재 옛길은 한양에서 삼남지방(충청·전라·경상도)으로 이동하는 삼남대로 970리 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고갯길이다.

갈재는 갈대가 많은 고갯길이란 뜻으로, 고지도에는 '노령(蘆嶺)' 즉 갈대가 울창한 산으로 표기돼 있다. 인접 지역 노령산맥의 명칭이 갈재에서 비롯됐음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갯길 정상에는 장성부사 흥병위를 기억하기 위해 세겨놓은 불망비(不忘碑·1872년)가 남아



장성 북이면 원덕리에서 정읍 방면으로 이어지는 갈재 옛길.

있다. 갈재 옛길은 장성군의 관리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현종이 거란족의 침략을 피해 나주로 피난할 때 건넜던 기록이 있으며, 동학농민운동 당시에는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동학군이 정읍으로 이동하기 위해 갈재를 넘었다고 전해진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

자치법규 정비 분야...교부세 3000만원 확보

화순군이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우수 성과와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역점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개선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 예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4개 분야다.

화순군은 동일 건축물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완화하는 규정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장에 앞장선 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 중인 점 등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 분야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등록규제 정비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굴, 개선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찾아가는 코로나 백신버스' 성과



강진군의 '찾아가는 백신버스' (사진)가 성과를 내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찾아가는 백신버스'를 운행해 군민 1000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방문 접종팀을 구성하고 보건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치과·물리치료 버스 2대를 활용해 하루 2개 면을 방문해 1일 최고 164명까지 백신 접종을

했다. 특히 위탁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사전 예약 없이 당일 현장 방문 접종이 가능토록해 3차 접종률 상승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 다.

추가접종 대상자의 접종 시기가 2차 접종 후 3개월로 단축됐으며 백신접종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061-430-3588, 3577, 3595)으로 연락하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백신이 남아 있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68명 모집

담양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7일까지 인턴 사업 참여자 68명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참여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 플뿌리경제과 및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인턴은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6주간 근무한다. 기존 행정지원반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